

작지만 강한 학교

〈3〉



곡성고

“꿈은 이루어진다”

곡성군 곡성읍내에 자리한 곡성고등학교 교사(校舍)에 들어서기 전 유리 문에 새겨진 문구다. 곡성고등학교의 현재와 미래를 함축시켜 놓은 표현이다. 지난 2004년까지만 해도 어느 농어촌지역 고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있는 듯 없는 듯한’ 학교 가운데 나왔던 곡성고가 전국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소위 명문고로 탈바꿈 하고 있다.

입학전부터 학력 관리... ‘실력 곡성’ 발돋움

‘별 볼일 없는’ 곡성고가 환골탈태하게 된 데는 교직원 38년 중 28년을 곡성교육에 헌신한 오남중(61) 교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곡성군청의 헌신적인 지원, 지역민들의 정성이 밑바탕을 이뤘다.

곡성지역 ‘적정규모학교 통폐합’을 주도했던 오 교장은 지난 2004년 9월 곡성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좋은학교 만들기’를 위한 개혁을 주도한다. 때 맞춰 곡성고는 지난 2005년 ‘적정규모학교교육 시범사업’ 대상교로 석곡고등학교와 통합됐고, ‘자율학교’로 지정되면서 소위 명문고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우선 대형교실부터 수준별수업까지 완벽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국최고 수준의 초현대식 건물로 교사가 지어졌고, 각 교실에 전자복합판넬 등 최신행 교재와 교구가 완비됐다. 기초가 다져지자 오 교장과 교사들은 우수학생 모집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곡성은 물론이고 광주와 전남, 전북 등을 돌며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해 밤 11시를 넘기며 일주였다. ‘지성 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2005년부터 관내 상위 10% 학생 18명이 곡성고에 입학했고, 2006년 신입생 모집 결과 140명 정원에 170명이 지원, 30명이 초과됐으며 곡성 지역은 물론이고, 남원, 구례, 고흥, 순천과 광주에서 지원한 중학교 내신 성적 10% 이내 우수학생 44 명이 입학했다.

최고시설과 우수학생, 여기에 우수교사의 열성적 지도, 최고의 교육시스템이 더해져서 곡성고는 빠르게 진화하기 시작했다.

국어, 영어, 수학을 중심으로 수준에 맞는 이등수업을 실시했고, 기본학력 미달학생을 위한 특별보충반을 운영했다. 여기에 다양한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으로 도시 못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한 것은 곡성고를 명문고로 발돋움 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성적 우수자의 사교육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곡성군청의 지원을 받아 방과 후 학년별 각 2반씩 모두 6개반을 1학년 55명, 2학년 40명, 3학년 20명으로 편성해 광주 유명학원강사 18명을 초빙해 대학수학능력 시험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수준에 맞는 교육방송시청을 통해 학력을 심화시키고, 학습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에게는 태권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농어촌 우수고교 모델로 각광받으며 명문고로 부상하고 있는 곡성고 학생들이 컴퓨터실에서 맞춤형 인터넷 교육방송을 듣고 있다. /리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장·교사 인재유치 ‘야간 강행군’

유명 강사 초빙 방과후 교육 효과

학력우수자 2년만에 10배나 늘어

반을 운영해 체력증진 및 인성함양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4년도에는 6명에 불과했던 학력우수자가 2005년 36명, 2006학년도에는 61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사상 첫 고려대 합격자가 배출됐고, 올해는 서울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제 대학진학을 위해 광주권이나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지 않아도 될 곡성고등학교가 된 것이다.

곡성고의 획기적인 교육시스템은 이것 뿐만 아니다. 전교생 401명중 135명이 수준별 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현재 120명 규모의 기숙사 증축 중에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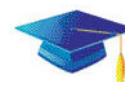
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통해 학력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한 곡성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무료로 학교를 다닌다.

더 부러운 것은 입학전 성적우수자는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8주간 전액 무료로 국,영,수 지도를 받고 토의 500점 만점 감의를 받는 등 입학 전부터 대학진학까지 학생들의 학력증진을 위한 시스템이 가동돼 철저한 관리가 시작된다. 이외에도 곡성고의 차별화된 교육시스템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다.

이러한 노력들은 교육부총리와 국무총리 방문으로 이어졌고, 적정규모학교 성공사례와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농어촌 교육의 모델이 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기 위한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불과 3년 남짓한 기간 동안 곡성고는 곡성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육기관으로 성장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는 곡성의 자랑으로 자리 매김할 것으로 지역민들은 믿고 있다. 곡성고에 진학하면 ‘꿈’이 이뤄진다는 것이 이제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캠퍼스 소식

광주여대 보건복지센터 개소



광주여대(총장 오장원)는 최근 교내 산학협력관 건물 1층에서 보건복지센터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운영에 들어갔다.

센터는 앞으로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해 2개월 여간 시험 운영한 뒤 오는 12월 노인, 장애우, 어린이 등 지역민을 대상으로 치료교육과 상담에 들어간다. 센터는 작업치료·언어치료·대체요법·물리치료·특수 교육 등 5개 교육 연구부, 노인복지·사회복지 경영 등 2개 경영 연구부와 임상동작·감각통합·언어·대체요법 등 4개의 치료실 등을 갖췄다.

또 관련 학과 재학생의 실습교육 등을 위한 진단평가실, 임상생활 동작훈련실, 재활공학 교육실 등을 마련했으며, 작업치료·언어치료·대체요법·심리케어·사회복지·초등특수·치료특수교육과 등 7개 학과가 연구·상담 활동에 참여한다. 광주여대는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중 처음으로

물리치료학과 신설을 인가받은 만큼 물리·원에 치료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2단계 사업을 통해 주간 노인복지센터, 재활병원, 임상보건 센터 등의 유치·설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캄보디아 정수시설 개수식

광주과학기술원(원장 허성관)이 두산중공업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티 현지에서 18일 정수시설 개수식을 가졌다.

이 정수시설은 하루에 시민 2천여명이 마실수 있는 60여 가량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국제연합대학(UNU) 협력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 국제환경연구소가 지난해 여름 현지 수질조사를 통해 식수원의 오염원인을 파악한 뒤 정수시설 제작, 운송, 설치 등에 필요한 경비를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한 것이다.

시엠티시는 앙코르와트 유적이 발굴돼 연간 관광객이 120만명이 넘어서는 정도로 국제적 관광지로 부상한 도시이지만 최근 관광객 급증으로 하천과 호수의 오염이 심각해져 극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김경웅 국제환경연구소장은 “기업의 지원과 국내에서 개발한 정수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환경문제 해결을 국제기구를 통해 도운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 대광여고 ‘사시名家’ 부상

1986년 개교 이래 9명 배출을 2차시험서도 4명 합격

광주 대광여고 사법시험의 명가(名家)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986년 개교 이래 지금까지 모두 9명의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올해 실시된 제4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에서도 박상희(28·9회·서울대 법대 졸)·신영인(25·12회·서울대 법대 졸)·고수현(25·12회·한양대 법대 졸)·문현정(23·14회·서울대 법대 졸) 등 4명이 합격한 것.

특히 2000년 1명, 2002년 2명, 2003년 2명, 2005년 2명 등 을 2차 시험 합격자 4명을 포함해 최근 7년 사이에 11명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대광여고는 또 올해까지 10년 연속 서울대 법대에 졸업생을 진학시키는 등 ‘실력’광주의 명성을 빛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대광여고 관계자는 “광주지역 여고 가운데 가장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동문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법시험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광여고는 새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 리더 육성을 위해 ‘21C 대광 리더 프로젝트’를 수립,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리더 교육을 실시해 재학생들이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oseong Hotel and Ariyang House. Features: 25 years of customer love, delicious food, and special packages. Includes phone number (062)525-2111.

Advertisement for Hongspeice (홍스페이스) furniture store. Features: Italian furniture, 50% off, and contact information: 062)226-7565.

Advertisement for Little China Chinese Language Academy. Features: 270,000 won scholarship, classes for adults, and contact information: www.littlechina.co.kr.